

Robert Vannoy 박사, 구약 역사, 강의 23

© 2011, Robert Vannoy 박사 및 Ted Hildebrandt

아브라함 언약 - 창 15, 17장과 아케다(창 22장)

창세기 15장과 연기는 용광로 나는 창세기 15장에 관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거의 결론지었습니다. 더 이야기하기 전에 Meredith Klines의 저서 *By Oath Consigned* 에 있는 진술을 읽어 보겠습니다 . 그것은 창세기 15장의 계약 비준 의식에서 동물의 죽인 부분 사이를 지나던 연기는 풀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By Oath Consigned*의 45페이지에서 클라인 은 이렇게 말합니다. “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계약을 끊는 것과 아브라함이 암흑과 공포 속에서 목격한 신현은 이 구약의 골고다를 위한 유일한 적절한 배경이었습니다. 연기는 풀무와 타오르는 햇불의 분리된 신현의 상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신비가 미리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목격한 것은 약속된 팔복의 충만함으로 그의 종을 인도하지 못하기보다는 오히려 쪼개지는 언약의 저주를 스스로 감수하려는 언약의 여호와의 이상한 자기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

약속의 땅의 범위

그는 이것에 대해 훨씬 더 길게 논의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것을 다룬 몇 문장에 불과합니다. 이는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경의 더 큰 맥락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그 구절(창세기 15장)을 계속하자면, 18절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땅 측면으로 돌아갑니다. 18절을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계가 지정됩니다. 구약에서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모압 평야에 모세가 왔을 때 신명기 1장 7 절 을 읽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그 근방 모든 곳과 평지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가 반복한 동일한 경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 이 내용은 신명기 11:24 에서 내부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런 다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를 따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때,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와 온 땅에 이르느니라. 헛 족속과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경계가 되리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반복을 얻습니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의 정복 통치 기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3:1-6에서 그 땅, 즉 가나안 땅을 빼앗겼다고 읽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북쪽에 있는 “하맛 어귀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얻을 땅이 많도다.” 기본 영토가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족 영토에는 수행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 첫 장에 이르면 여러 지파에 대하여 읽게 되느니라 베냐민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므낫세는 각지의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에브라임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나안 사람들, 스불론은 그렇지 않았고 아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그림은 그들이 실제로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에 수비대를 배치한 시대가 되어서야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은 “다윗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영토를 회복하러 유브라데 강 가에 가다가 그를 쳐죽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마병 칠백 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넷째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다른 곳에 수비대를 배치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열왕기상 4장 21절을 읽게 됩니다.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들이 예물을 가져오며 섬기며”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강” 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킨다. 24절에 내려가면, “ 그가

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강 건너편 온 *지역*을 다스리더라 ” 고 읽게 됩니다.
 팁사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팁사에서
 이집트까지 통치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이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성취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을 붙잡지 못했고 이때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경은 창세기
 17:7-8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땅이 다시 언급됩니다. 8절 끝부분에서는
 가나안 온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한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 존재하는 한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과 동일하다.

예레미야 31장 35-36절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언급이 있습니다 .
 파도가 으르렁대는 바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그 규례가 내 앞에서 폐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하여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한 의미는 해와 달이 빛을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나라가 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 이스라엘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속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창조
규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다시 보면, 노아와의 언약과
관련하여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 그러므로
땅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 나라의 지속에 대한 약속은 미래에도 무한정
계속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새 언약

이는 구약과 새 언약 기간에 걸쳐 아브라함 언약의 행정을 어떻게
연관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그것 으로 언약 신학 의
문제에 정말로 빠져들게 됩니다 . 신약의 경륜과 구약의 경륜에서는 다르게
집행되는 은혜 언약의 포괄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구약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의 집행은 다르며 거기서 당신은 할례와
세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가 계속되는
할례의 대응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운데 담이 허물어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지워진다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구별이 어떤
의미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경제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별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지라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지라도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곧 영적인 자손들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씨앗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지만, 물질적인 씨앗에는 여전히 구별이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언약이 갱신되고 확증됨

자,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관한 세 번째 구절입니다. 창세기 17:1-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엎드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나라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17장에 있는 것은 확증되고 갱신된 언약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12장에 제시되어 있고 15장에서 비준되었으며 여기 17장에서 확인되고 갱신되었습니다. 언약과 관련된 자료의 이러한 종류의 반복은 출처 비평가들이 작업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17장을 P 문서에, 창세기 15장을 J 문서에 귀속시킵니다.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J가 더 원시적이고 17이 더 정교하며 다양한 소스로 인해 이러한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종류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이 99세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16장 끝부분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사십육 세라.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13년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아직 사라의 아들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씨에 대한 원래의 약속으로부터 24년이

됩니다. 그로부터 24년 후,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 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희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그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약칭인 아브람의 어원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두 가지 요소, 즉 “아버지” 를 의미하는 *ab* 와 “높아지다” 또는 “고귀해지다” 를 의미하는 *ram* 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 생각은 “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시느니라” 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신위(theophoric)라고 불리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신위적인 이름이고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지칭한다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 그 이름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ab* 와 *raham* 의 합성어입니다. *raham* 은 “많은 수” 를 의미 하므로 그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리키므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높으시다” 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수많은 자손과 관련하여 언급됩니다. 6절에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리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약속된 노선은 그 안에서 왕족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선택되고 자세히 설명되는 주제가 됩니다.

네 번째 언약의 반복 - 창세기 22:17-18

네 번째 언약 반복 구절은 창세기 22:17-18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의 일이며, 이는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문맥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고 16-18절에 이르면 다음과 같이 읽게 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유일한 아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리고 네 씨는 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7절과 18절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요소, 특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두 개의 진술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네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 그리고 18절 끝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몇 가지 어려운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응답 - 순종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왜냐하면” 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논평 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정말 어려운 질문에 직면할 때 종종 발생합니다. 논평은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트 13 페이지의 3분의 2 아래에 있는 칼빈의 주석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본문의 언어는 우리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행위를 옮겨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순수한 자선입니다.” 칼빈의 제안은 적어도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는 “우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여전히 행위의 보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하나님은 아무 것도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유익에 상을 주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일종의 용어적 해결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거저 주어지는 것을 행위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도 빚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유익에 상을 주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혜택은 실제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도록 지정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구별이 단순히 꼬리표의 구별이라면, 칼빈은 실제로 이 본문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의 순종을 약속의 선포로 가져가셨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인이나 공로에 따른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집행 수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원인도 아니고 효율적인 원인도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그의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으며, 그것은 약속의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선포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 대한 약속이 그의 믿음과 순종의 반응보다 앞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의 반응의 중요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필연적인

동반으로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본문에 언급된 약속의 선포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칼빈이 “하나님은 빛을 갇지 않으시 고 오직 자기의 유익에 상을 주신다” 고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나를 놀라게 한 글을 읽었습니다. *By Oath Consigned*를 집필한 메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이 개인적으로 인쇄한 구약 신학의 시작인 *왕국 프롤로그(Kingdom Prologue)* 3권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를 통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들을 다루고 있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의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증거이자 실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당신은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분리하려고 시도하는 가상의 상황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식화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당신은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선택,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모든 것에 속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 : 그들이 과연 멸망할 수 있습니까? 글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들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점까지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종류의 문제에 관한 성경의 진술을 그 자체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개 한쪽이 다른 쪽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기본적인 모순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모순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비의 영역에 있습니다 . 이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유사합니다. 한 인격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두 본성, 한 인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꽤 어렵습니다.

기독교론적인 공식처럼 이것이 무엇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구성에 있어서 신성과 인간의 요소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면, 그것은 둘 다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 교육, 배경을 포함하는 영감에 대한 유기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종종 드러나지만 결코 성경의 신성한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과 인간의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가치 있는 어떤 필연적인 결론도 없지만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조건을 적용하셔서 그것이 약속의 전체 선포의 일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가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제안일 뿐입니다.

창세기 17:9-14 할레 - 언약의 표징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는 이 네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17장 9-1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17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지만 다시 돌아가서 9-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와 네 후손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네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 대대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 곧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찌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와 같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받지 아니하고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 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는 내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와 그의 씨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포피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와 자기 자녀뿐 아니라 그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사람 곧 종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14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진술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할레 의식을 무시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25절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길을 지나 여관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보내셨다.”

문제는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레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요, 그가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신 것 같습니다. 17장에 언급된 것처럼 태만함으로 인한 결과는 “그 영혼이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5-19절에 나오는 무교절의 맥락입니다: “너희는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도 누룩을 너희 집에서 내버려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으면 그 영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거기에는 할레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유월절과 관련된 무교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범하면 그 영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다” 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처형된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파문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해 해설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출애굽기 31:14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것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무릇 거기서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 구절에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암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다른 구절들, 즉 무교절이나 할례절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누가 그 형벌을 집행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책임인가? 그것은 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 명령에 포함된 제재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기로 의도하신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의식으로서의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례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새롭고 특별한 의미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모든 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및 땅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를 벌할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 이 나라들은 다 참으로 무할례자들이요, 이스라엘 온 집도 마음에

무할례자들이니라.” 이 구절은 할례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이 그랬고, 에돔 사람이 그랬고, 암몬 사람이 그랬고, 모압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 의식의 도입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하여 발견됩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내적 정결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례의 기본 개념이 부정함 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관련된 상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식은 내부 정화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죄는 인종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만으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정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즉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가 됩니다. 마음의 할례 사상은 구약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0:16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보상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로마서 4장 8절부터 할례에 대해 논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합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합니까?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면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나 무할례를 받았을 때나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요 무할례를 받은 자니라” (롬 4:10). 그리고 11절은 할례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할례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례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유아에게 적용될 때 세례에 의한 할례를 비유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언약의 표징이므로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표징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정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마련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 - 아케다, 이삭의 결박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나는 NIV를 읽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킹제임스 성경보다 창세기 22장 1절의 더 나은 번역이었습니다. KJV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원본 킹 제임스에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셨다” 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해당 단어를 훨씬 더 잘 번역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14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획된 경험을 삶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당신의 삶에 가져오실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당신이 매일 경험하면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욥을 생각해보면 그는 가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는 사단이 주께 시험한 것이니 사단이 여호와께 와서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이 의인이라 내가 그에게 이 일을 하게 하면 그가 넘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좋아, 특정한 한도 내에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사람을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 하늘 법정 앞에 들어와서 허락을 구한 줄도 몰랐습니다.

이를 자신의 경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경험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나를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가 시작한 걸까요? ” 글썄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둘 다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주어진 사건에서 그것이 왜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주로 사탄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시작한 것인지 실제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매우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여호와와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고,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련에 대처해야 하는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 시험에 관해 여기서도 유용한 논평을 했습니다. 563페이지에서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마음 속에서 충돌할 때 그의 마음은 심하게 상하고 격렬하게 동요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의 씨는 이스마엘을 통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계속해서 확증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의 자녀인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과 약속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모순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지 즉시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으로 명령과 약속을 조화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눈을 감은 채

지시받은 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수단을 훨씬 초월하여 나 없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요, 남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의 모든 애정을 버리고, 자기 아들의 집행자가 됨으로써 세상 앞에서 수치스럽고 잔인한 치욕을 감내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모순시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약속된 축복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히브리서 11:17-19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음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는 자기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기록된 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분은 어디서부터 그를 형상으로 받으셨느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일 여기서 픽업하겠습니다.

로라 녹스(Laura Knox)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Jennifer Bobzin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다시 해설함